

남수단 정부군, 반군 거점 탈환... “부족간 학살 횡행”

“사망자 500~수천명”... 유엔, 평화유지군 1만2500명으로 증원

부족 간 유혈사태가 벌어진 남수단에서 정부군이 반군 거점 가운데 하나인 종글레이주 보르시를 탈환했다. 또다른 반군 거점인 벤티우시에서는 대규모 시신 더미가 발견됐으며 수도 주바에서는 정부군이 가택 수색을 하며 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엔 기지로 대피한 목격자 2명은 “정부군이 누에르족을 목표물로 삼아 250여명을 경찰서로 끌고 가 총살했다”고 AFP에 말했다.

이번 유혈사태가 벌어진 이후 전국적인 사망자 집계는 아직 500명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토비 랜저 유엔 인도

도주의 조정관은 “수천명은 숨졌을 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같은 대량 학살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을 현행 7000명에서 1만2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파견 경찰 인력도 현재 900명에서 13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남수단 정부 측과 반군 측의 대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키르 대통령은 전날 반군세력에 “조건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마차르 전 부통령도 이날 대화 제의를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회담 장소로 이웃한 에티오피아를 제안했다.

반군 유엔 사무총장은 “이 분쟁에서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이것은 정치적 위기이고 평화적 정치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전 부통령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적대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영국도 이날 고위 외교관을 파견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군 증원 만장일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을 현행 7000명에서 1만2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900명에서 1323명으로 늘렸다. /연합뉴스

살바 키르 남수단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정부군이 보르시를 탈환했다”며 “현지에 남은 반군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군은 앞으로 북부 유전지대 유니티주의 주도 벤티우시를 탈환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는 또다른 유전지대인 북동부 에피나일주에서도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성명에서 “유엔 직원이 벤티우의 학살 현장을 방문한 결과 34구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또(정부측) 디카족 군인 74명이 실종돼 사망한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바에서는 정부군이 가택 수색을 벌이며 반군이 지지하는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의 출신 부족인 누에르족을 살인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정부군에 체포됐다 탈출해

남수단 한빛부대 인근 박격포 2발 떨어져

정부 “日 신탄지원 정치적 비화 안돼” 유감 표명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주둔 중인 유엔기지 인근에서 24일 오후 5시(한국 시각 오후 11시) 남수단의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발생해 박격포탄 2발이 기지 내로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5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한빛부대가 주둔한 기지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에서 남수단의 정부군과 반군 사이 교전이 발생해 120mm 박격포탄 2발이 기지 안으로 떨어졌다”면서 “포탄이 떨어진 곳은 한빛부대와 300m 떨어진 네팔군 구역(기지) 영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격포탄이 네팔군 기지 영내로 떨어지면서 네팔군 수명이 철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격포탄은 남수단 정부군이 반군에 의해 작악된 보르공항을 탈취

하는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기지로 날아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부대는 장병들을 즉각 대피호로 대피시켰으나 피해는 없었고 장병들은 생활관에서 모두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빛부대는 경계병력을 동원해 경계초소 근무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요원은 특전사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일원으로 남수단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 2진은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2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한빛부대가 유엔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신탄 1만발을 받은 것을 놓고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

과 관련, 정치적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일본 측에서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한빛부대는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수단 상황을 고려, 21일(현지시간) 예비단약 확보를 위해 UNMISS 본부 소 근무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측은 특전사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부대는 탄약 1만 발을 유엔에 무상양도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며 우리 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량만큼 유엔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는 무관하고 유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빛부대 주둔 기지내박격포탄 2발 낙하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전대용봉지구모아APT코너	전대정문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신축 4층 룬 19개 (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 (용 3억, 보 1억)	룬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정문 룬 18개 월수익 580 매가 7억

수완지구 수익성상가(매매·임대)

수완지구 상가 임대	
★1층 상가매매 17.5평 매가3억5천★ 대방5차 APT 후문 코너	★수완지구 1층 (18평)★ 보3천, 월 130만 (의류, 부동산 네일, 화장품, 적합)
★3차 상가 매매 85평 매가 3억3천★ 모아APT 후문 보증금 3천 월 200만 용 2억5	★3층 상가(62평)★ 보3천, 월 160만 (학원, 병원, 사무실, 매매가능)
★3층 상가매매 62평 매가 2억6천★ 세계로 병원 대로변 보3천 월160만	쌍촌동 원룸 빌라 (APT소형)매매 ▶11평형 매가 3200만 ▶12평형 매가 3300만 ▶15평형(투룸) 매가 4000만

주) 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향 장층,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워케이션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지 4,900㎡ 건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재만은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생활용지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

해남 관리지역 (낮은 야산) 금매

문내면 석교리 5300평 평당 3만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회원면 조선배후 단지 가능

발,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태양광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

남북한 성비 ‘南男北女’

北 기대수명 南보다 12년 적어

남북한의 성별인구와 성비를 비교했을 때, 남한은 상대적으로 남자가 많고 북한은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의 ‘201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남한의 성비는 100.3명, 북한의 성비는 95.2명이었다.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다. 성비가 100명이 넘으면 남자가 더 많고, 100명 미만이면 여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남한은 남자가 2천504만명, 여자가 2496만5000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고, 북한은 남자가 1191만2000명, 여자가 1251만6000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통계청은 “북한 성비가 100보다 낮은 것은 출생성비는 정상수준인데 여자

의 기대수명이 더 높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남북한을 합쳐 계산하면 남자가 3695만1000명, 여자가 3748만1000명으로 여자가 더 많아 성비는 98.6명이었다.

성별 기대수명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남한 남자의 기대수명은 77.8세, 북한 남자의 기대수명은 65.6세로 12.2년 차이가 벌어졌다.

여자 기대수명의 경우 2013년 기준 남한은 84.7세, 여자는 72.4세로 12.3년의 차이가 났다.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2010~2015년 남한은 3.4명, 북한은 22.0명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연합뉴스

“김정은, 최룡해 건의에 장성택 사형 승인”

“집행후 눈물 흘려”

日 요미우리 보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의 건의에 따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간부 3명이 건의해 김 제1위원장이 사형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광저우(廣州) 발로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장 전 부위원장의 사형이 집행되고 닷새 후인 17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울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소식통은 “김 제1위원장 사형이 그 정도로 빨리 집행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자신의 손으로 고모부를 죽였다는 것에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김 제1위원장이 장 전 부위원장의 수형에 앞서 측근의 처형을 명령할 때 만취상태였다는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정은 체제 후 국내 입국 탈북자 ‘뚝’

올 1500명 안팎

탈북자 입국 규모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크게 줄어 들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2006년 처음으로 2000명을 넘긴 이래 2007년 2548명, 2008년 2805명, 2009년 2929명, 2010년 2402명, 2011년 2706명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김정은 사망 이후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본격 출범한 작년에 1502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탈북자 단속을 부쩍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데려오는 공작에 적극 나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